

정은혜 작가의 개인전 '지로의 꿈' 진행... "워킹하우스뉴욕, 케이리즈 갤러리 공동기획"

김제민 객원기자 | 승인 2023.09.04 14:45



[핸드메이커 김제민 객원기자] 워킹하우스뉴욕(대표 수이 강)과 케이리즈 갤러리(대표 리즈 김)가 공동기획한 정은혜 작가의 개인전 '지로의 꿈'이 9월 15일까지 삼성동 케이리즈 갤러리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올해 12월 14일 미국 뉴욕 첼시에 위치한 Ricco/Maresca Gallery에서 개최예정인 그녀의 개인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먼저 작품을 선보이는 행사로 ESG전문기업 리브우드(대표 장준영)가 후원했다.

지로는 정은혜 작가의 반려견으로 정은혜 작가가 지로와 함께했던 다양한 일상 속 모습을 드로잉으로 담아냈다.



작가는 그림을 타인과 소통을 하는 매개로 시작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녀만의 세계를 만들어왔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실제 자신의 성향을 많이 반영한 한지민(영옥 역)의 쌍둥이 언니 영희 역을 맡아 소화하며 강렬한 존재감으로 화제가 되었다. 선천적으로 다운증후군과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정은혜 작가의 출연은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블러일으켰다.

이번 전시에서는 드로잉 신작 11점과 다양한 인물을 그린 채색원화 9점이 전시된다.

정은혜 작가는 '세상에 버려지고 싶은 개는 없어요. 인간도 동물도 함께 잘 살아야죠. 저는 앞으로도 지로와 함께 살며 지로를 계속해서 그릴 겁니다.'라고 하며 작업에 대한 열정을 표현했다.

본 전시에서 관객은 길을 잃은 유기견 지로와 사회와 단절된 고독한 삶을 보내야 했던 정은혜 작가가 서로 교감하며 상호 소통하는 과정에서의 일상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예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다.

저작권자 © 핸드메이커(handmake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제민 객원기자